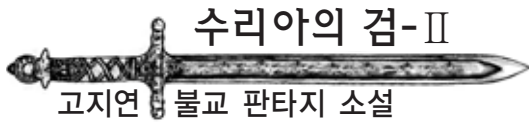


# 그래, 우리 지난 주에 어디까지 읽었었지?



## 수리아의 검-Ⅱ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 이야기의 시작 - 운명과 예언 (3)

아낙을 둘러보면 우리 영감은 다시 아이의 눈을 마주보았다. 정말 무늬와 똑같은 얼굴이었다. 말간 눈빛까지 닮아 있었다. 우리 영감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말했다.

“흠, 일단 네 어머니 상태부터 보자구나.”  
마야는 정말 깊이 잠들어 있었다. 즐거운 꿈이라도 꾸고 있는지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있었다. 우리 영감은 맥을 짚어보았다. 별 다른 이상은 느껴지지 않았다. 이번엔 아이에게 다가가 맥을 짚었다. 아이는 피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협조적이지도 않았다.

“그래, 아주 건강하구나.”  
아이의 손목을 놓으며 우리 영감이 말했다.  
“배는 고프지 않니?”  
그는 아이가 혹시 자신의 말을 못 알아들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부러 또박또박 발음을 해보았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나는 아무래도 뭘 좀 먹어야 되겠다.”  
그는 배가 고프다는 듯 집짓 배를 만지는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였다. 그의 귀에 익숙한 목 소리가 들려왔다.

“웃 줘.”  
우리 영감은 깜짝 놀라 아이를 쳐다봤다. 자신이 잘 못 들었나 싶었다.  
“웃 줘.”  
분명 아이의 목소리였다. 무늬와 비슷한 음성이긴 했지만, 좀 더 맑고 높은 느낌이었다. 아이는 우리 영감에게서 아무런 대꾸가 없자 또 같은 말을 반복했다.

“웃 줘, 여기 웃이 하나도 없어.”  
할 말을 잃은 모습으로 아이를 쳐다보던 우리 영감이 그제야 대답했다.  
“그래, 웃을 모두 태워버렸으니 입을 게 없었겠구나. 내 금방 하나 구해다 주마.”  
아이의 그가 이웃에서 구해다 준 웃을 건네자 누가 볼 새라 얼른 입었다. 우리 영감은 일단 식사준비부터 시작했다. 웃을 다 입은 아이의 배에서 꼬르륵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는 동안에도 마야는 계속 잠에 빠져 있었다. 급하게 차린 식사였지만 아이는 정말 맛있게 먹었다. 그 모습을 몰끄러미 바라보던 우리 영감이 지나가는 말투로 말했다.

“이제 네 이름을 지어야겠구나.”  
“무니.”  
아이 말했다. 그리고 어느 새 밥을 다 해치웠는지? 잘 먹었습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했다. 쪽 반말을 쓸 때는 몰랐는데, 그 인사만은 놀라울 정도로 무늬와 똑같은 말투였다.  
“그래, 네가 그 이름이 맘에 든다면, 너희 어머니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 영감이 마야를 쳐다보자 무늬 역시 엄마를 쳐다봤다.

“엄마는 왜 계속 자는 거야?  
“뭘지 지쳤을 게다. 열을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을 겪었으니까. 그런데 말이다.”  
우리 영감이 고개를 돌려 다시 아이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너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니?”  
아이 역시 그를 쳐다봤다.  
“우리 영감. 난다네 할아버지.”  
“그걸 어떻게 아는 거지?”  
“그냥 아는 건데.”  
뭘 물어보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아이가 대답했다. 우리 영감은 ‘흠’ 하며 다시 생각에 잠겼다. 그때, 마야가 신음소리를 내며 잠에서 깨어났다.

태어나자마자 금방 여덟 살 소년으로 자라난 무늬는 마을에 관해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 영감이 여러 번 확인했지만, 아이는 매번 ‘그냥 알고 있는 것’ 이라고만 대답했다. 아이로서는 오히려 그런 질문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이 동생 무늬에 대해서 몇몇 마을 사람들은 죽은 형 무늬가 마야에게 남긴 선물이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의 환생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모두들 이 출생의 기묘함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웃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현상은 언제나 두려움을 주기 마련이었다. 사람들에게 동생 무늬가 꺼려지는 존재가 된 것은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를 보자마자 순수하게 기뻐한 사람은 오로지 난다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워낙에 넉넉한 인심이 온화한 성품을 지닌 마을 사람들은 무늬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마야 역시 다시 힘을 내 아이들을 정성껏 돌보았다. 마을은 조용히 안정이 되어갔다. 다만 무늬와 똑같은 얼굴로 태어나 금방 여덟 살이 되어버린 어린 소년이 그 후로 얼마나 외롭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혼자 보냈는지 아무도 모를 뿐이었다.

그리고 계절이 두 번 바뀌어 겨울이 됐다. 마을의 아이들은 모두 우리 영감의 집에 모여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1주일에 한 번 우리 영감이 책을 읽어주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무늬 역시 커다란 화로 앞에 앉아 있었다. 마을에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별 필요 없으니 아이들에게 굳이 문자를 가르치려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다. 그래서 놀거리가 별로 없는 계절엔 이 시간이 아이들에게 가장 즐거운 일 중 하나였다.  
화로에 모인 아이들 중 유독 눈에 띄는 아이는 난다였다. 몇 달 사이에 키가 훌쩍 큰 난다는 이를 전 무늬에게 아홉 살 생일 선물로 받은 목도리를 칭찬받고 앉아 땀을 비 오듯 흘리고 있었던 것이다. 어떤 여자가 말했다.  
“그거 좀 벗어.”  
마을에서 가장 예쁘게 생긴 세라였다.  
“싫어. 춥단 말이야.”  
“아. 무슨 따를 그렇게 흘리면서 춥대.”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때 한 남자가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삽화 · 김홍인

“상관이 왜 없어? 세라는 너 좋아하는걸.”  
얼굴이 발개진 세라가 아니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마을 아이들 모두 아랑곳없이 한 목소리로 세라를 놀려대기 시작했다.

“뭐야! 아니라니까! 난 난다가 더워서 썬 호박처럼 돼도 상관없다구!”  
“아니, 왜들 이렇게 시끄러운 게냐?”  
그때 우리 영감이 책을 가지고 나오며 물었다.  
“세라가 난다를 좋아한다요!”  
아이들은 모두 깔깔거리기 시작했다. 세라가 눈을 흘겼지만 난다는 기분이 좋은지 싱글싱글 웃고만 있었다. 우리 영감 역시 깔깔 웃으며 아이들을 바라봤다. 그러나 아이들 중에 무늬만이 별 관심 없다는 듯 무뎠직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보자 저절로 걱정 어린 한숨이 새어나왔다.

“세라 같이 예쁜 아가씨가 우리 난다같이 키만 큰 말쑥쟁이를 좋아할 리가 있겠니? 그렇지, 세라야?”  
씩씩대던 여자 아이는 막상 할아버지에게 그런 질문을 받자 또 다시 얼굴이 발개지며 대답을 하지 못했다. 우리 영감은 귀엽다는 듯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주고는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다.  
“그래, 우리 지난 주에 어디까지 읽었었지?”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후, 우리 영감은 난다와 다

시 마주 앉았다. 머느리가 옥수수술을 따뜻하게 데워 가져다주었다. 한 모금 물레 마시려던 난다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걸 알고 괜히 탄생을 피웠다.

“무니 말이다.”  
“네, 할아버지.”  
“여전히 아무도 그 아이를 집으로 부르지는 않는 모양이구나.”  
겨울은 오히려 아이들끼리 친밀해지기 좋은 계절이었다. 밖에서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계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이 맞거나 친해지고 싶은 아이들은 서로의 집에 모여 낮 시간을 함께 보냈다. 마을의 오랜 겨울 풍습 중 하나였다.

“그런데 무늬도 별로 가고 싶지 않대요. 애들이 불러도 말이예요. 전에 무늬랑은 그런 게 많더 다른 거 같아요. 아이들도 여전히 무늬를 무시워하구요. 뭐가 무섭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지만요.”  
“넌 어머니, 난다야? 무늬가 이상하지 않니? 넌 그 아이의 형과 가장 가까운 사이였으니 말이야. 처음 보는 아이지만 처음 보는 게 아니니, 헛갈리지는 않니?”  
난다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전 이렇게 생각해요. 무늬는 무늬잖아요. 만약 무늬가 쌍둥이로 같은 날 태어났었다고 해

도, 그 두 사람하고 지금 같은 친구가 됐을 거예요.”  
난다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한테도 저처럼 생각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아버지?”  
우리 영감은 기특하다는 듯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역지로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지. 하지만 무늬가 앞으로도 계속 저리 지낼런지, 이 할애비는 아무래도 그게 걱정이 되는구나.”  
“그건 저도 그래요.”  
우리 영감은 인자한 눈빛으로 격정스러운 표정의 손자를 바라봤다. 문득 리시의 예언서를 다시 연구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난다네 집을 나온 무늬는 마을 아이들이 시야에서 모두 사라진 다음에야 혼자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려워한다는 걸 알았다. 태어나자마자 겪은 일이었다. 고작 몇 달을 살았을 뿐인 그가, 8년을 넘게 산 것처럼 사람들을 대하는 게 그들로서도 불편한 일인 모양이었다. 물론 무늬 역시 혼란스러웠다. 오늘 같은 날도 그렇다. 그는 세라를 알고 있다. 하지만 친밀하게 대하더라도 했다가는 아는 게 아니라 아는 척하는 게 되어 버린다.

## “일이 잘 안 풀리시죠?”

-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성적은 안 오른다구요?”
- “평소엔 잘 하다가 시험만 보면 꼭 실수가 나오나요?”
- “이유 없이 자주 아프시다구요?”
-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데구요?”
- “사업을 벌이는 족족 망한다구요?”
- “어디 가서 물어보면 사주는 아주 좋는데 왜 그러는지 답답하시다구요?”

그렇다면 이름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틀림없이 이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잘못 바꾸면 예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돼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더군요.

이제 한자 중심의 작명, 수리학 중심의 작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름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미성 이름 연구원에서는 세계최초로 30여개 성명학을 집대성한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작명을 합니다.

“이름이 당신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름 속에 희망, 꿈, 성공, 건강, 재물, 실패, 좌절, 절망, 부도, 파산, 불행 등 모든 운명적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재미성 이름 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2-6, 성지하이츠 3차 빌딩 409호



유남 탁대영원장



장천 백구빈원장

성명학 교실 제자모집

<상담·문의전화>

**1600-0063**

현재 불교 TV 광고 중  
(10:30, 14:00, 18:00, 23:00)

이름의 중요성에 대한

<무료 강연회>

매주 토요일  
11시 ~ 13시

## 시)대한불교 일월 조계종 종도를 모십니다

行을 으뜸으로  
靈을 정화하는  
眞 宗도로서

중책을 맡으실 분을 모십니다.

총본산: 전북 정읍시 산외면 법화원  
연락처: 전북 익산시 황등면 죽촌리

장 원 사

장원님 011-677-8525

## 수행템플스테이 (깨달은 다이어트)



머리의 번뇌를 씻고  
입을 쉬고 내장을 쉬는  
지혜로운 템플스테이

※ 절, 염불, 독경, 참선, 와선, 행선, 부처님오신날, 알아차림을 완벽하게 배우고 점검을 받으며 실천수행

청견스님 직접 수행교육지도

잠을 깨고 혼침 줄음 이기며 피로풀고 스트레칭 날리고 삼매 깨달음 100% 이룩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마음챙김 살아차림

● 대상(누구나): 출가예정자 영자 사미 사미니는 미래불공덕회에서 수련회비 전액 후원

◆ 수행일정(예약신청)

8차: 4/ 2 ~ 4/ 3 11차: 5/14 ~ 5/15  
9차: 4/16 ~ 4/17 12차: 6/11 ~ 6/12  
10차: 5/ 7 ~ 5/ 8 13차: 6/18 ~ 6/19

**법왕정사 부산법당**

전화 : 051)583-7886

www.법왕정사.kr(수행템플스테이)참조